

“800만 외국인 잡아라”… 은행권, 전용상품·앱 특화 경쟁

국내은행 외국인 고객 수 813만명
채류 외국인 늘면서 금융거래도 ↑

비대면 계좌개설, 전용지점 개설 등
4대 은행 ‘외국인 맞춤 전략’ 속도
지방은행, 다문화직원 배치로 가세

주요 은행이 외국인 특화 서비스를 확대하며 고객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은행의 외국인 고객 수가 800만명을 넘어서면서 금융권의 주요 고객 층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의 금융 편의 지원에 나섰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명이다. 기존 최고치인 2019년의 252만명보다 13만명 늘었다. 전체 인구(5122만명)의 5.17%에 해당한다. 90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자의 비중은 77%에 달했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의 비중도 65.6%를 기록했다.

경제 활동을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금융거래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



BNK경남은행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에서 다문화 가정 직원이 외국인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의 외국인 고객은 전년 대비 37만명(4.8%) 늘어난 813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국내 거주 외국인 265만명

외국인 고객은 내국인 고객보다 환전, 해외 송금 등 서비스를 이용이 잦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익 감소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외국인 고객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외국인 고객의 이용이 잦았던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특

화 서비스를 확대하며 외국인 고객 수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4대 은행의 외국인 고객 수는 600만명이다. 은행권 전체 외국인 고객의 약 75%다.

KB국민은행은 외국인 고객 전용 입출금계좌인 ‘KB 웰컴 계좌’를 출시해 입·출금 수수료 면제, 환전 우대를 제공 중이다. 오는 30일에는 외국인 고객 전용으로 수수료를 낮춘 해외 송금 서비스 ‘KB 킷센드’도 오픈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국인 고객을 대

상으로 비대면 계좌개설과 체크 카드 발급이 가능한 ‘SOL 글로벌 체크카드’를 출시했고, 올해는 비수도권에서 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김해시에 외국인 특화 지점을 오픈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주민이 7.1%에 달하는 평택시에 외국인 전용 지점을 개설하고 38개 언어를 대상으로 실시간 번역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외 송금에 특화된 모바일 뱅킹 서비스인 ‘하나 E Z’도 출시해 운영 중이며, 외국인 특화 상품도 개발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외국인 고객용 앱인 ‘우리WON글로벌’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강의를 오픈했고,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국내 부동산 정보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 지방은행도 ‘특화 브랜드’

지방은행도 외국인 고객 확보에 힘쓴다. 우즈베크, 몽골 등 중앙아시아 고객의 이용이 많은 전북은행은 외국인 특화 브랜드 ‘브라보 코리아’를 출범해 알뜰폰 비교, 의료 정보 제공 등 각종 생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경남은행도 일부 지점에 다문화 직원을 배치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지역 대학을 방문해 유학생을 위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의 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 계좌개설을 포함한 금융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금감북도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요 서류 번역본 제공, 외국인 앱 확대, 특화 점포 안내 강화 등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금융거래도 용이해지면서 외국인 고객이 은행권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내국인 인구 감소 전망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은행권의 외국인 유치 경쟁은 점차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삼성물산, 1.2조 규모 장위8 공공재개발 수주

새 단지명 ‘래미안 트리젠트’ 제안
21개동, 2801가구·복지시설 조성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자인 서울 성북구 장위8구역에 수주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 주민대표는 지난 19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12만1634㎡ 부지에 지하3층~지상46층 규모의 총 21개동, 2801가구와 부대복지시설 등을 조성하



장위8 공공재개발 조감도. /삼성물산

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1조 1945억원 규모다.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은 GTX-C예정 노선인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이 도보 15분 이내

에 위치해 있다.

장곡초와 장위초, 광운중, 남대문중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근에 우이천이 흐르고 오동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트리젠트(RAEMIAN TRIZENT)’를 제안했다. 삼위일체(Trinity)와 독일어 중심(ZENTRUM)의 결합이다. 장위 최고층 3개의 랜드마크동과 문화·자연·커뮤니티가 어우러진 주거 명작을 선보여 장위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지난해 한은 금융망 원화 결제액 617조

증권거래자금 결제액 18.6% 늘어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망을 통해 결제한 금액이 617조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뱅킹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늘면서 금융공동망을 통해 결제되는 금액도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21일 ‘2024 지급결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한은 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 결제금액이 617조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은 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원화자금은 지난 ▲2022년 524조3000억원 ▲2023년 554조 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은 금융망 참가기관수는 은행 52개, 비은행 84개로 총 136개다.

자금 종류별로 살펴보면 증권거래자

금 결제금액은 357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6% 늘었다. 참가기관간 차액결제자금은 28조4000억원으로 인터넷뱅킹 등 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같은기간 5.4% 증가했다.

시스템별로 보면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규모는 4405만건, 106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6.4% 증가했다.

특히 금융공동망을 통한 자금이체 규모는 97조9710억원으로 11.2% 늘었다. 오픈뱅킹 서비스로 공동망을 이용한 금액이 19%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에서는 지난해 328조8000억원이 결제됐다. 1년 전과 비교해 21.4% 증가한 규모다.

/나유리 기자 yul115@

김태한 경남은행장, 청년 직원들과 기업문화 혁신 논의

2025 에스리더 임명식 개최
은행 발전 방향·추진 목표 논의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이 추진 과제 및 아이디어 발굴,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 등 목표를 위해 청년 세대 직원들과의 소통에 나섰다.

BNK경남은행은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이 ‘2025년 BNK YES! LEADER(에스 리더) 임명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임명된 에스 리더들과 은행의 발전 방향과 추진 목표 등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매년 전(全)사에서 젊고 활동적인 직원들을 모집해 ‘BNK YES! LEADER’로 임명하고, 창의적인 실행 과제 발굴을 비롯해 은행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제도 개선,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사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앞줄 가운데)과 새롭게 임명된 경남은행 ‘BNK YES! LEADER(에스 리더)’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회적 책임활동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BNK YES! LEADER’는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남은행만의 경쟁력 발굴, 업무 방식의 변화 및 혁신,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달 초 BNK경남은행장으로 새로

게 취임한 김태한 은행장은 이날 새롭게 임명된 에스 리더들에게 임명장과 특별 선물을 수여하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은행의 발전 방향을 비롯해 직원들이 평소 애용했던 점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 2차 판매

하나은행, 1차 대비 가입요건 완화
경기민원24서 가입대상 확인 필요

하나은행이 경기도와 협약을 통해 2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 2차 판매를 실시한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은 경기도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2차로 공급되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 금융 통장은 1차 공급 대비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만 25~34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만 25세부터 39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거주 요건 또한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로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통장 가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25~39세 청년이며, 채무조정 확정 후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단,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존 대출(통장대출 포함)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경기민원24’를 통해 지원 신청과 가입 대상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또는 ‘My 브랜치’를 통해 비대면 신청하면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